

호남, 삼성과 HDPE 공급계약 체결

일본 Mitsui제품 수입도 추진 ... 대한유화 파업 겹쳐 7만-10만원 인상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생산기업들이 내수가격(Film Grade)을 10월 톤당 90만으로 7만-10만원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석유화학이 No.3 HDPE 플랜트 폭발사고 이후 No.1 및 No.2 플랜트도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의 HDPE No.1 플랜트는 No.3 플랜트 폭발로 가동에 따른 허가서가 현재 발급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했고, No.2 플랜트는 일정부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대한유화의 10월16일 노조파업까지 겹쳐 HDPE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HDPE 생산기업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HDPE는 가격보다 수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여 일부 수요기업들이 재고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돼 수급에 의한 가격상승세가 예상되며, 일명 Black Market이라 불리는 수저상가에서도 HDPE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어 일부에서 재고량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생산기업 관계자는 “HDPE Film 그레이드 9월 가격이 톤당 평균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가격상승 폭은 생산기업이 요구하는 1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3만-4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남석유화학은 HDPE 플랜트 가동중단에 따라 같은 Mitsui공법을 사용하는 국내의 SK 및 삼성Atofina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일본 Mitsui Chemicals에서 직접 수입해 공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Mitsui에서 수입하게 되면 공급단가가 도착가격 기준으로 톤당 92만-93만원”이라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이 일본 Mitsui에서 수입하게 되면 일본 HDPE Film 그레이드 내수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통관 절차까지 감안해 톤당 90만원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HDPE Film 그레이드 9월 내수가격이 8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Atofina 관계자는 호남석유화학과의 HDPE 공급계약에 대해 “삼성Atofina는 호남석유화학과의 HDPE를 일정량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는 SK도 파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더해져 시장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SK 관계자는 “임금협상 진행과정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SK는 10월16일 단체교섭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23일,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10월 HDPE Film 그레이드 가격은 생산기업마다 다르게 예상하고 있는데, 한 생산기업은 내수경기 침체로 가격상승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0월 톤당 85만-87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다른 기업은 83만-84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HDPE Film 그레이드는 일본 Mitsui공법을 사용하는 호남석유화학, SK, 삼성Atofina가 국내 Market Leader였으나 10월3일 호남의 HDPE No.3 플랜트 폭발사고로 내수시장 재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포린, Yarn, 사출 Grade는 대수요처로 경쟁이 심해 HDPE Film Grade 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0/22>